



봉우 컬럼

핑계대지 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건 다 핑계가 있기 마련이다’는 뜻이다.

그런데 핑계를 누가 대던가? 어떤 일을 성취한 자던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 자던가? 제 시간에 출근한 자가 핑계를 대던가, 아니면 늦은 자가 대던가? 누구나 알다시피 핑계와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수단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눅21:14)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눅21:15)고 약속하신다.

핑계와 변명의 어미는 바로 게으름이다. 게을러서 노력 못하고, 게을러서 일을 못하고, 게을러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느니라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잠22:13).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게으른 나를 이기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늘 핑계와 변명할 것을 찾는 궁색한 삶이 될 것이다. 게으름은 멸망으로 이끄는 악이니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가 가능한 법,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성공할 방법과 길을 모색하는 멋진 삶을 살자.

요즘 시대를 탓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탓하고, 개천에는 용이 없다며 흠수저로 태어난 것을 탓하는 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칭기즈칸이 한 말이다. “집안이 나쁘다고 핑계대지 마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핑계대지 마라. 내 나라는 어린이까지 200만도 안 되는 나라였다. 못 배웠다고 핑계대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못 쓴다. 그러나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

기억하라! 실패자의 주머니에는 핑계와 변명이 있고, 성공자의 주머니에는 방법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사명에 부도내지 말라

9월 4일, 인천교회 교역자들이 이태원 본부 사무실로 집결했다. 당초 주일에배를 마치고 광주집회 격려차 광주로 가려던 목사님이 급거 소집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이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을 전수한 것과 같다 하겠다(행20). 목사님의 소집이유는 침체된 인천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인천교회는 우리 교단의 모태교회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교회 담임인 장영국 목사가 헌신하다가 과로로 몸이 쇠약해져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손을 놓고 있으면 됩니까?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하는 법이고, 대통령이 공석이면 부통령이

됩니까? 사명에 부도를 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허리춤을 동이고, 신발 끈을 조이고 뛰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살펴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면 됩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는 기름을 부어봤자 불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권한 권위의식을 버리고 뛰세요. 내가 불붙지 않고는 남을 불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성도들이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전무해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전도에 열심을 내야하고,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들더

내일이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과 남을 살리는 말, 희망의 말로 성도들을 독려해주시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세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더불어 진실된 자가 되십시오. 진실은 어디서나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되지 않으면 자주 변명하게 되고, 자주 핑계를 찾게 됩니다. 그런 자를 누가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됩니다.

나는 바로 광주로 내려갈 것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네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는 말씀대로 맡겨진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봐주세요. 늘 말했듯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무



인천교역자 세미나(2018년 9월 4일 본부 강령)

국가를 이끌고 가는 법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더 열심히 집안일을 분담해서 집안이 제대로 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생기고, 구역식구가 몇 주 안 보여도 당최 감각이 없습니다. 다들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교회의 목사요, 전도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란 목숨을 부리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아니요’가 없고 오직 ‘예’만 있을 뿐이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명완수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관자처럼 손 놓고 있으면

러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세요. 마가다락방 시절에는 전도사는 물론이요 집사나 평신도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지만 시대의 흐름은 타야 합니다. 고착된 사고를 버리고 앞서나가는 진취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 위주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 교회의

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사명자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 애끓는 심정이 각자에게 전염된다면 인천교회는 분명히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것이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0:37~11:6)



믿음은 넘지 못할 벽이 없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맞습니다. 믿음이란 ‘믿~~습니다’ 하고 기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실상과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상(實狀)’은 실제로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이요, ‘증거(證據)’란 확실한 증빙서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새 집을 계약했다고 합시다. 계약했다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 들어갔다고 내 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집 맞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증빙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내 집입니다. 때가 되면 곧 내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내 것입니다. 믿음이란 증거, 확신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버렸을 뿐입니다. 희망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버렸고, 믿음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기도해놓고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금 풍량이 일고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는 사농은 집의 등기서류를 잃어버린 것이고, 더는 도둑맞아 명의가 남에게 넘어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 의욕이 넘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8~39).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날이 밝아 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기필코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것이었

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 이 믿음을 앞에 하나님의 사자도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었습니다(창32:22~32).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단헛던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갈멜산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고(왕상18:19~46), 엘리사는 기필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며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계승자가 되어 정말 갑절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고 (막 10:46~52),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막7:25~30),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보리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도 반드시 목적인 바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투증을 앓던 여인(마9),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입다(삿11), 친구를 중풍병에서 낫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네 친구(막2:1~5), 꼭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던 한나(삼상1), 이 모두 믿음이 있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여러분, 이처럼 확고한 믿음은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위에 나열된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소

경이 눈을 뜬 것이고, 믿음으로 죽어가던 딸을 살린 것이고, 믿음으로 서자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담아놓은 태를 열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시름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믿음

이 없는 겁니다.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진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문제가 여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 앉은뱅이에게서 걸을 만한 믿음을 봤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

라”(행14:9~10).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음이 갈팡질팡하는지 압니까?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겁니다. 개도 슈퍼마켓 앞에서 주인이 기다라고 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곧 나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건가?’, ‘나 죽는 거야?’ 하며 조급해하고, ‘이건 아냐.’ 하며 결국 믿음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앞의 문제는 허상이다 실상은 믿음대로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십니다(살전2:13). 하나님 앞에는 흥해나 어리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아픈 자를 고치는 것이나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고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흥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단체가 죽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파산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들은 다 깨질 것이고, 실상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돈을 많이 내면 값진 것을 살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칼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국가경제의 백년대계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화학 및 기타 장치산업분야의 선진국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하였지만 절대다수에게 소득과 고용을 꾸준히 창출하던 전기전자, 경공업 기계부분의 수출 및 산업은 크게 감소, 혹은 소멸 상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시장을 크게 잠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처녀 출시한 신제품을 모방하여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으로 대량생산, 세계 시장에서 대중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중화된 상품이 성숙단계나 완전경쟁단계에 진입하면 중국에서 한국 산제품을 모방하여 대량생산으로 최저가 시장에 공급하는 순환 사이클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의 수입업자들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 직접 발주하는 성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절대품질과 기능은 한국산보다 열악하지만 사용자 기준에서 볼 때 품질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는 전 세계 동종업종에서 매출, 생산량, 그리고 이익률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지 비상장기업의 사례입니다.

첫째, 자본조달과 운영에 대한 방식입니다. 생산법인의 설립단계부터 정부기관 및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금융권

차입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및 관리 분야를 복수의 팀에 위임하여 실적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고정비를 소기업사장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회사가 공급 가능한 가격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부문입니다. 문화대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외세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이고, 이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외국과 교역 없이 내수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을 통하여 전 산업분야에 이론에 강한 기술 인력을 오랜 기간 동안 양성하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제품에 대한 역기술(reverse engineering)자료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판매방식입니다. 내수, 수출의 구분 없이 판매시장에 복수의 대리점을 선임하여 낮은 가격, 그리고 외상을 제공하고 고정비 부담이 높은 현지법인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IMF시절 이래 공공지출, 주택건설, 그리고 일부 정책 산업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민관이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였으나 효과가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반드시 외국과의 교역에 의해서만 양질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론보도에 따라 일희일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위정자와 관련책임자들이 백년대계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집사**

:: 신앙논객 ::

안티(Anti-)에 감사하라

지난 8월에 있었던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그 어느 때보다 최대 인원이 참가했고, 호응도도 가장 높았던 만족스러운 수련회였다.

앞으로 더 나은 수련회를 위해 올해 수련회에 참가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모 비밀 설문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수련회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은혜가 넘치고 만족스러운 수련회였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아쉬웠던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특히 필자가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돌직구처럼 날아와 필자의 심령을 흔들어 놔다.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른 단어가 '안티(Anti-)'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안티가 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고, 안티가 있으니까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지!'

예수님도 안티가 있으셨다. 다니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셨다. 바리새

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종교재판을 받고 안수 받은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당신의 길을 가셨다. 오히려 안티들이 던진 돌들로 성을 쌓으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고, 그런 목사님을 들어서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케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안티는 그 계획의 일부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목사님처럼 누군가 던지는 돌로 내 성을 쌓다보면 그것들로 인해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으리라. 안티로 인해 기도하게 되고, 안티로 인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니 안티에게 되레 감사해야 한다. 안티 덕분에 분발하고 각성하는 나를 발견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는 끈대일까

내가 연구실에서 홀로 보낸 식사과정 2년간은 선후배, 동기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고된 시간이었다. 수업 조교, 행정 업무, 시험지 채점, 논문 작성 등의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다보니 연구실 한편에 침낭을 깔고 쪽잠을 자면서 일한 적도 많았다. 지금은 연구실에 제법 많은 후배들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한다. 그런데 후배들이 알아서 나를 선배로 챙겨주고 음식점에서는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챙겨주려고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를 보면서 '이렇게 나도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권위적인 끈대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끈대'라고 하면 나이 들고 꼬장꼬장하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요즘에는 젊은 끈대도 많다.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한 이유를 어

떻게든 찾아내서 이를 이용해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며 지적이나 충고를 일삼는 그런 사람 말이다.

한편 예수님은 이른바 '끈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다. 늘 과부, 고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먼저 서셨다.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무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3~11)고 하시며 결코 의인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이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강요하지 않아도 존경은 나를 좇으리라.

김성일 성도
cre8tor@naver.com



:: 삶이 있는 이야기 ::

파도를 타는 기쁨

청년시절 파도타기를 배운 적이 있다. 충분히 교육을 받고 모래사장 위에서 모의연습을 마친 뒤 서핑보드를 발목에 단단히 묶고 바다로 들어갔다.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핑보드 위에 엮드려 팔을 저어 파도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파도를 맞닥뜨리는 순간, 부드럽게 파도 위를 오를 거란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서핑보드와 함께 그대로 파도 밑으로 고꾸라져 들어갔고 눈, 코, 입으로 밀려드는 잔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겨우 허리 위까지 오는 물높이였지만 파도의 높이가 더해지니 공포감이 들었다. 그렇게 수없이 고군분투하다가 제대로 파도를 타보기도 전에 완전히 포기했다. 지금도 높은 파도 위에 서서 바다를 가로지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분명 나와 같은 서핑보드이고, 같은 파도인데 어떻게 멋지게 서있을 수가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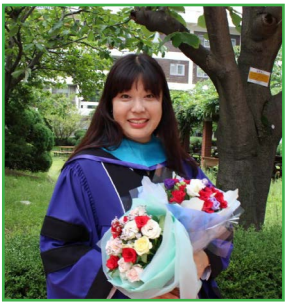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온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하면 삶에 밀려드는 고통과 고난의 파도를 막아주실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수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

을 허락하신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 파도에 휩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높은 파도 위에 우뚝 서서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는 환희를 맛보라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각자의 믿음의 근력대로 굳게 서서 기도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번번이 파도에 쓸려 고통 받지 말고, 힘들어도 그 위에서 서서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응원하신다. 물살에 휩쓸려도 예수의 손이 우릴 단단히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신다.

나도 크고 작은 파도 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느끼는 상상 이상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위압적인 파도가 밀려올 때면 몸이 움츠러든다. 그럴 때면 나보다 더 큰 파도를 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다. 그분들이 타고 있는 서핑보드가 내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를 예수!!

이호은 사모

대기만성의 삶을 살며



저는 40대의 나이에 서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과 그분의 능력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교육강사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대부분 공교육 교사들이 공부하는 사범대학원에 입학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언만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신문을 통해 다시 학업에 전념하실 분들에게 부족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먼저 지원할 대학원 교수님과의 컨택(contact, 연락)이 필수입니다. 교수님과 서면으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연구 관심분야를 설명하고 교수님의 답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에 제출해야 할 공통서류는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기획서 1부, 학사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영어 성적표(TEPS 또는 TOEFL)입니다. 저는 다행히 유효기간 2년이 안 된 텡스 점수가 있었는데요. 공인 영어성적점수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대학원 준비과정이 더 수월했습니다. 또한 각

대학원별로 제출서류가 있는데 제가 지원한 사범대학행정실에 제출할 서류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자기소개 및 수학(연구)계획서입니다. 수학기획서를 쓸 때 저는 많이 부담스러워서 여러 번 수정했었는데, 막상 대학원을 들어와서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구 분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과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출신학과와의 교수 추천서, 이력서, 학사학위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논문을 쓴지 20년도 더 되어서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2013년도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잠깐 다니다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만뒀었는데, 고대 교수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만둔 제자가 서울대로 간다고 하니 추천서를 바로 써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추천서 말씀을 드리면 답문이 안 오거나 조금 불편해하셔서 고민했었는데 저를 지도해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고려대에서 다른 대학교 전임으로 가시면서 제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셔서 그 분 학교로 가서 추천서를 받았습니 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력서는 시중에 있는 이력서로 적어갔는데 교육학과 이력서 양식이 따로 있어서 다시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학사학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보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사학위논문이었던 조건이 학사학위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보고서로 변경되어서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류제출을 잘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은 지필고사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건 제 몫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업을 마치면 지필고사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와 학술적인 어휘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는 어려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반복해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읽은 부분을 수없이 읽다보니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위해 그 당시에 제 관심분야였던 세종학당이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당을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관심분야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고 기관을 방문해본 것이 면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총회장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지필고사와 면접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답이 기억나게 하시고 면접관들이 이 딸을 보는 순간에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 목사님의 기도대로 시험지를 보는 순간 답이 생각났습니다. 전공 필수 한 문제와 전공 선택 두 문제를 2시간여 본 후에 1시간 정도 면접을 봤는데(영어 면접 포함) 교수님들이 정말 호의적이시고 깊은 지식을 겸비한 겸손한 분들이셨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하은 전도사

:: 교단소식 ::

되새김질 ‘묵상’

어느 그리스도인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하며 모함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 울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찌면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 저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척 실망스럽고 섭섭했지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은 그럴 수 있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순간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로 ‘그럴 수가 있느냐’며 따질 땐 상처와 아픔뿐이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자 주님의 평강이 물밀듯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니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질병이 다 소화되어 녹아내립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에 비유하는 묵상은 ‘소화된 사고’라 할 수 있는데, 소는 풀을 먹고 나서 그것을 첫 위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다시 입으로 올려 되새김질 후 다시 삼킵니다. 이 소화과정을 3회 되풀이하는데 소의 그 큰 몸이 어떻게 풀만 가지고 지탱되나 하는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풀을 씹고 또 씹는 과정을 통해서 소는 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하 다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1:1~2).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JC아카데미 개강예배



JC아카데미 개강예배
(2018. 9. 4 엘루체 컨벤션홀)

9월 4일, 2018년도 하반기 JC아카데미가 개강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여름 수련회를 통해 새로 입교한 젊은 이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처음 세미나를 참석하고 말씀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현장을 사모했다.

이번 학기 JC아카데미에서는 바울서신을 강의한다.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을 말하는데, 알

다시피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랍비였다. 학문적으로도 훌륭했던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 이날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로마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이시대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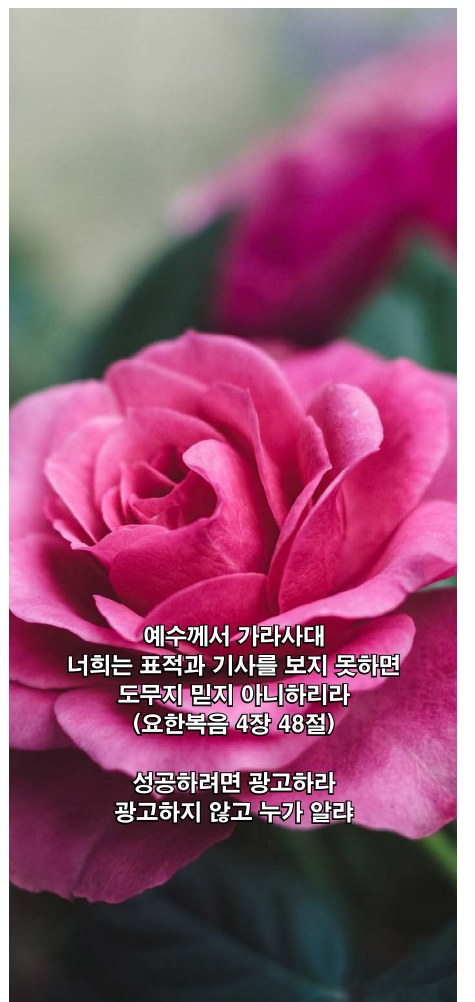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이 로마 및 서반아 지역에 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서론부터 상당히 친절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1:7). 또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義)’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모든 사

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다. 즉,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복음(福音: 구원의 기쁜 소식)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학기 JC아카데미 ‘로마서 강해’는 복음에 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지식은 내가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이여,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JC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 8시 반,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

성공하려면 광고하라
광고하지 않고 누가 알랴